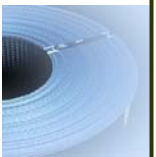


2006. 7. 10

POSRI CEO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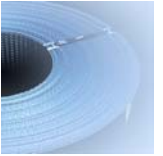
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



철강연구센터

유승록, 최동용, 이상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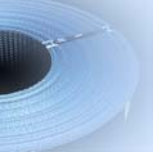
Executive Summary



〈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〉

- 각국들이 **FTA**를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**FTA**가 세계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
 - 세계 **FTA** 체결 건수는 '90년 27개에 불과하였으나, '06년 3월 현재 193개로 7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
 - 아시아 국가들의 **FTA** 체결이 상대적으로 여타 지역보다 지연되고 있음. 그러나,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**ASEAN**을 대상으로 한·중·일 3국의 **FTA** 체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
 - 향후 **FTA** 추진 실적과 내용에 따라 각국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- **FTA**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첫째, **FTA**는 시장확대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역내우선, 역외차별적 속성으로 인하여 체결여부 자체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됨
 - 둘째, **FTA**는 대외적 개방화 압력과 대내적 보호 압력을 절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함
 - 셋째, 해외직접투자의 유인 수단으로 작용하며, 대외신인도 및 대외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음
-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, **ASEAN**,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**FTA**를 본격화하고 있음
 - 한-미 **FTA**: '07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현재 1차 협상을 완료하였으나, 국내 이해집단간 심각한 이견 조정과 협상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**FTA**의 성공 열쇠임
 - 한-**ASEAN** **FTA**: '06년 5월 상품협정을 타결하였으나, **ASEAN**은 민감 및 비민감 품목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, 철강 등을 지정하였음

- 한-인도 FTA: 한국은 인도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의 완화에, 인도는 서비스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와 경제협력에 협상의 중심을 두고 있음
- FTA는 무역 및 투자 확대, 경제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. 그러나 산업별로는 경쟁력에 따라 상이한 영향이 예상되고 동시에 경쟁국들의 FTA 체결 여부와 내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임
 - 현재 협상 진행중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으로는 ASEAN, 인도 순임
 - 산업별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, 대부분의 제조업은 생산증가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
 - 또한 중국,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FTA 실적과 내용도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
- 따라서 정부는 경쟁국들의 FTA 체결 여부 및 내용을 고려하여 FTA를 추진하고, 각 산업계는 협상결과를 고려한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 - 정부에서는 경쟁국들도 동시에 우리와 같은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FTA의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
 - 산업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FTA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상결과를 고려한 새로운 수출 및 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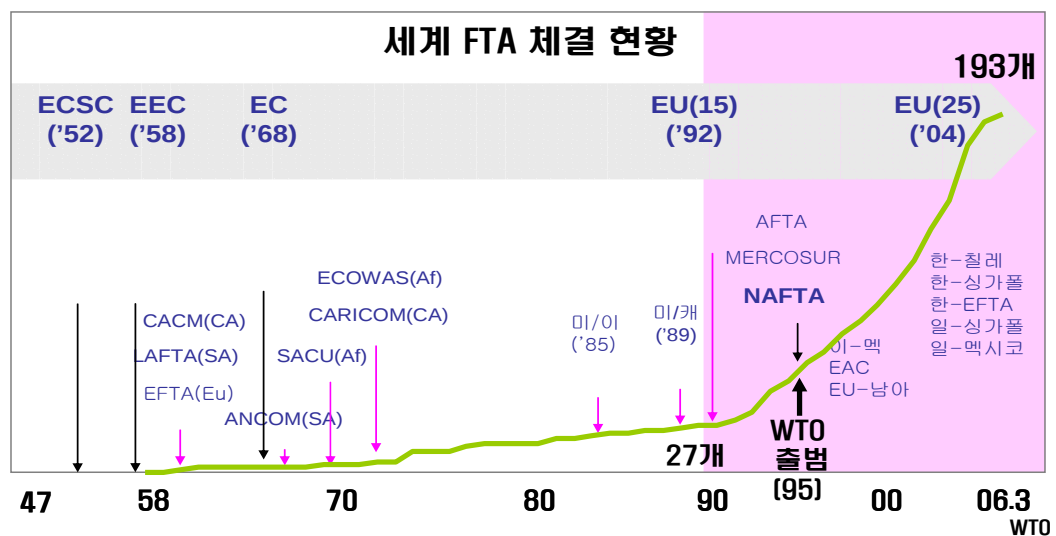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FTA, 핵심 통상정책으로 부상.....	1
II. 왜 FTA 인가?.....	3
III. 한국의 FTA 추진 현황	5
IV. FTA의 파급 영향.....	11
V. 시사점	12

I. FTA, 핵심 통상정책으로 부상

□ FTA(Free Trade Agreement, 자유무역협정)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

- '90년까지 27개에 불과하였던 세계 총 FTA 체결 건수가 '06년 3월 현재 193개로 급증하였고, 특히 '95년 세계 전체 무역자유화를 위해 출범한 WTO 이후 크게 확산되고 있음



□ 각국들이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FTA 추진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임

- '05년 말 기준으로 칠레는 총 14건 46개국, 멕시코는 10건 43개국, EU도 29건 3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, 인도, 싱가포르, 미국도 10 건 이상의 FTA를 체결하였음
- 반면,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(3건), 중국(3건), 일본(5건)은 상대적으로 FTA 추진 실적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임

<주요국가별 FTA 체결 현황('05년 말 타결 기준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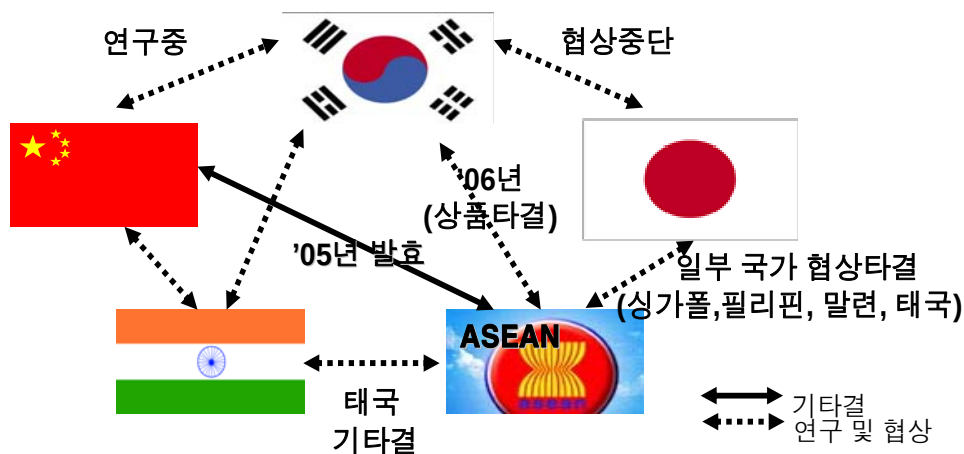
	칠레	멕시코	EU	인도	싱가폴	미국	중국	ASEAN	일본	한국
건수	14	10	29	10	12	10	3	3	5	3
국가수	46	43	39	27	24	15	12	12	5	6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국가간 FTA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

-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한·중·일 3국간의 FTA 체결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
- 중국은 '05.7월 ASEAN과의 FTA를 발효하였고, 일본은 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 개별적으로 FTA를 타결하였으며, 한국은 ASEAN 9개국(태국 제외)과 '06년 5월 상품협정을 타결함

<동아시아 역내 FTA 체결 현황>



☞ 향후 개별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FTA 체결 건수와 경쟁국 대비 FTA의 자유화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
II. 왜 FTA 인가?

□ 첫째, FTA는 시장확대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, 역내우선, 역외차별적 속성으로 인하여 체결여부 자체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됨

- FTA는 시장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, 생산성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하고, 동시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함
- FTA는 참가한 당사국들 간에만 상품, 서비스, 투자 등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므로 미참가국들은 역내시장에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함
- 또한, 공동원산지규정, 공동기술규격 등 FTA로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은 새로운 산업보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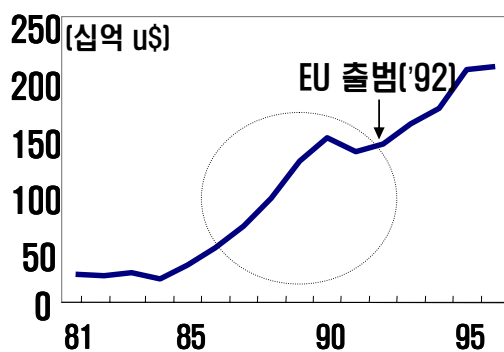
□ 둘째, FTA는 대외적 개방화 압력과 대내적 보호 압력을 절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함

- GATT/WTO의 전면적 시장개방(149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국내시장을 개방, GATT 제 1조 최혜국대우) 정책을 따를 경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쟁으로 인해 취약산업이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
- 그러나 취약산업의 보호를 위해 과도한 보호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국제분업의 기회 축소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
- FTA는 개방화 범위를 협상을 통해 제한할 수 있고, 소수의 회원국들에게만 시장을 개방하여 개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함

□ 셋째, FTA를 해외직접투자 유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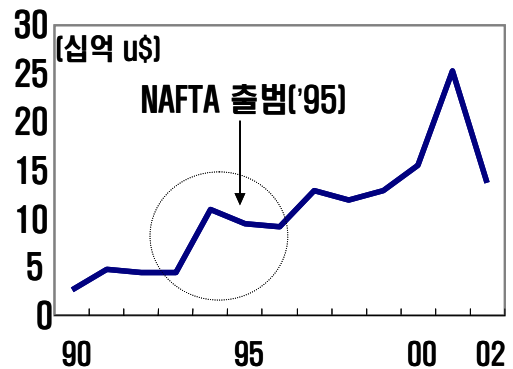
- FTA로 회원국간에 무역 및 경제 장벽이 제거되면 시장선점을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됨
- EU는 '92년 통합의 심화, 멕시코는 '95년 NAFTA 출범을 계기로 역외로부터 대규모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음

<EU의 FDI 유입>



주: EU는 주요 10개국 기준

<멕시코의 FDI 유입>



자료: UNCTAD

□ 넷째, FTA는 국가의 대외신인도와 대외교섭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

- 동유럽 10개국과, 베트남, 캄보디아 등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EU 및 ASEAN 가입은 이들 국가들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기여함
- EU는 WTO의 다자간 협상에서 개별국가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고, 미국의 NAFTA 결성도 UR에서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음

Ⅲ. 한국의 FTA 추진 현황

□ 한국 정부도 수출시장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'00년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

- 칠레와는 '04년, 싱가포르와는 '06년 3월 발효되었고, EFTA와는 협상이 타결되어 '06년 중 발효될 예정으로 있음
- 소규모 국가 및 경제권과의 협상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미국, ASEAN, 인도, 캐나다 및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
- 그러나 일본과는 '04년 12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
- 동시에 EU, 중국, MERCOSUR 등과는 FTA 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, 한-중-일 FTA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

한-미 FTA

□ '07년 3월 타결을 목표로 '06년 6월 1차 협상을 완료하였으며, 농산물시장 개방, 원산지규정 등이 협상 쟁점임

- 상품분과 중 섬유분야는 미국의 原絲생산지 기준 원산지규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고, 자동차분야는 미국의 5톤 이하 트럭에 대한 관세(현행 25%) 인하 문제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문제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음
- 그리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이 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하여 WTO 이상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
- 이외에 무역구제분야도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는 분야인데, 미국의 핵심적인 무역정책 수단이 되고 있는 A/D(반덤핑), CVD(상계관세) 등 비관세조치 완화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

- 또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,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됨

□ 서비스 및 투자부문 협상도 난항이 예상됨

- 스크린쿼터는 '06.7.1부터 국내영화 상영일수를 축소(146 → 73 일)하기로 사전 합의됨
 - 미국은 한-미 FTA 선결조건으로서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, 약가산정제도의 투명화,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, 스크린쿼터 축소 등 4가지를 요구하였음
- 미국 측에서는 택배, 금융,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을, 한국은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개방확대를 요구하고 있음

□ 1차 협상(6월 5일 ~ 9일, 워싱턴) 결과, 많은 분야에서 양국간의 이견이 노출되었음

- 15개 분과 협상이 진행되었으나, 농산물, 위생검역, 섬유 및 무역구제의 4개 분야는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함. 통합협정문을 작성한 11개 분과 중에서도 세부 내용중 60% 이상이 단일문안 작성에 실패하였음

□ 한-미 FTA는 심각한 국내 이해대립의 조정,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성공 열쇠임

- 한-미 FTA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일부 서비스 산업 등으로부터 심각한 반대에 직면해 있고, 이로 인하여 2차례의 정부주관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음

- 한-미 FTA는 파급효과가 여타 FTA 대상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국익증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
- 또한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실익을 희생하기 보다는 각 분야별로 협상의 한계를 설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
-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이 필수적임

한-ASEAN FTA

□ '04년 11월 협상을 개시하여 '06년 5월 태국을 제외한 9개국과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하였음

- '05년 2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11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여 '06년 5월 태국을 제외한 9개국과 상품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음
- 이를 계기로 '06년 상반기 중에 기본협정, 분쟁해결협정, 상품협정의 비준 동의를 위한 국내절차를 개시하였음
- 그리고 '06년 하반기 중에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을 타결하여 '06년 12월 한-ASEAN 정상회의시 정식 서명을 추진할 계획임

□ ASEAN은 수입액 기준으로 약 90%에 이르는 상품에 대해 '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

- 그러나 자유화가 일정기간 유예되는 민감 및 고민감 품목의 비율이 수입액의 약 10%에 이르고 있음(한-칠레 FTA의 경우 5% 미만임)

<한-ASEAN FTA 상품협정 주요 내용>

	주요 내용
체결현황	태국 제외 9개국 서명
일반품목	수입액 90%, '10년까지 관세 철폐
민감품목	수입액 7%, '16년까지 0~5%로 인하
고민감품목	수입액 3%, 양허 제외 및 점진 인하
●농산물 : 한국, 고민감품목 지정 ●자동차 : CKD, 부품은 '10년까지 관세철폐(완성차 대부분 민감품목 지정) ●개성공단 : 원칙적으로 특혜관세 부여(Outward Processing으로 인정)	

자료 : 외교통상부

□ **ASEAN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민감 및 고민감 품목으로 대부분 공산품을 지정함**

- 인도네시아는 HS Code 6자리 기준 총 464개 품목(금액 기준 186백만 달러, '04년 對韓 수입실적)의 민감 및 고민감 품목 가운데 36%인 169개 품목이 철강제품임 (금액 기준 36% 차지)
- 말레이시아는 476개 민감품목 중 철강, 기계, 자동차의 3개 산업 제품이 건수로는 46%, 금액으로는 74%를 차지하고 있음
- 필리핀은 총 350개 품목, 273백만 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였는데, 이중 화학제품이 건수 18%, 금액 32%를 차지하고 있고, 다음으로는 철강제품이 건수 13%, 금액 22%를 점하고 있음

□ **ASEAN시장은 한·중·일 3국 모두의 경쟁적 주력시장**
이므로, 향후 3국의 對ASEAN 경쟁력은 각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협상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

한-인도 FTA

□ 한-인도 FTA는 '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2차 협상을 완료하였음

- 2월 7일 양국 정부 수뇌간에 한·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(CEPA;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 추진에 합의함
 - CEPA에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, 투자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의 일종임

- 상품, 원산지 규정, 관세행정 및 절차, 서비스교역, 투자 자유화, 기타 무역규범 및 협력, 분쟁해결 및 일반규정 등 협상 대상을 7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

□ 한-인도 FTA에서 인도는 서비스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, 한국은 상품교역 및 투자 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

- 인도는 IT, 법률 등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한국기업의 對인도 진출과 산업 및 기술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
-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, 그리고 국내 기업의 對인도 진출 확대를 위한 투자장벽의 완화에 협상의 초점을 두고 있음

□ 한-인도 FTA 협상은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

IV. FTA의 파급 영향

□ FTA는 경제관계, 산업의 경쟁 및 보완성 그리고 투자 가능성 등에 따라 대상국별로 파급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

- 대상국과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할 때, 한-미 FTA가 국내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, 다음으로는 ASEAN, 인도 순임

<FTA 대상국별 경제성장 효과>

	미국	ASEAN	인도	중국
산업구조	보완·경합	상호보완	상호보완	상호보완
평균관세율	3.9%	9%	33%	12%
비관세장벽	中	低	高	中
교역비중	13%	7%	1%	18%
투자 여력	高	中	小	中
GDP 성장	2.0%p	0.6%p	0.2p	3.2%p

주: 각국 '03년 기준

자료: WTO, UNCTAD, KIEP 종합

□ 산업별로는 대상국과의 경쟁력 격차에 따라 파급영향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

<FTA 대상국별 경제성장 효과>

	농업	제조업				서비스업	국가종합
		섬유	자동차	전자	기계		
미국	Δ	○	Δ	○	X	X	Δ
ASEAN	X	○	○	○	Δ	○	○
인도	X	X	○	○	○	Δ	○
중국	Δ	○	○	Δ	Δ	○	○
산업종합	X	○	○	○	Δ	Δ	○

주: ○ 생산증대, Δ 현상유지, X 생산감소

자료: KIET 등 종합

□ 국내 철강산업은 FTA로 순수출 증가가 예상됨

- 한국은 '05년부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, FTA가 수입증가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
 - 다만,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진출 환경의 개선으로 일부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
- 미국은 현행 철강수입 관세율이 '0' 이므로 FTA로 비관세장벽이 제거되어야 한국의 순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임
 - 그러나, 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수출증가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음
- ASEAN, 인도, 중국은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로 한국의 수출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
 - 특히 ASEAN의 경우,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FTA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
 - 한-ASEAN FTA 협상내용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경우, ASEAN 시장에서 對中 및 對日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현재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<FTA 대상국별 철강 순수출 효과 추정(천톤)>

	수출	수입	순수출
미국	360	-	360
ASEAN	250	-	250
인도	70	-	70
중국	430	140	290

주: 관세 및 비관세장벽 효과를 종합한 결과임

자료: POSRI

V. 시사점

□ **FTA 체결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FTA는 각국들의 핵심 통상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**

- 한국도 칠레, 싱가포르 및 EFTA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소국과의 FTA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미국, ASEAN, 인도 등과 같은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고 있음

□ **FTA는 무역, 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**

- 그러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경쟁국들이 동시에 FTA를 추진함으로써 향후에는 FTA의 실질적인 협정 내용에 의해 경쟁력이 변화될 수 있음
- 예를 들면, 한·중·일 3국이 동시에 ASEAN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동지역에 대한 경쟁력은 FTA에서 합의된 실질적인 자유화의 범위,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임

□ **따라서 정부에서는 FTA 체결 실적 뿐만 아니라 내용이 보다 충실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**

- 그리고 기업 및 산업 차원에서는 정부의 FTA 협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출 및 투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유승록 (02-3457-8154, e-mail: srryu@posri.re.kr)

최동용 (02-3457-8143, e-mail: dychoi@posri.re.kr)

이상학 (02-3457-8169, e-mail: shlee@posri.re.kr)